

번호: PO-MA-001					
제 목	암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과 관련요인 Use of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by Cancer Patient in Korea				
저 자 및 소 속	강복수1), 김명화2), 이경수1), 황태운1), 김석범1), Annette Maxwell3) 1) 영남의대 예방의학교실, 2)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, 3) Division of Cancer Prevention and Control Research, UCLA School of Public Health and Jonsson Comprehensive Cancer Center				
분 야	의료관리 [기타]	발 표 자		발 표 형 식	포스터
<p><b>목적:</b> 암 환자의 보완대체요법 이용양상과 관련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실시하였다.</p> <p><b>방법:</b> 3개의 대도시와 2개의 도·농복합형 도시의 9개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 받은 후 1년이 지난 입원환자 267명과 외래환자 155명 총422명을 대상으로 2002년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조사를 시행하였다.</p> <p><b>결과:</b>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63.7%였으며, 연령이 낮을수록,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을수록 이용률이 높았다. 암 종류별 보완대체요법 이용률은 간암이 71.7%로 가장 높았고, 정보의 획득경로는 가족이 41.3%로 가장 많았고, 친구나 친지가 39.8%였다.</p> <p>보완대체요법 이용 시작 시점은 진단시점과 수술 이후가 각각 35.7%로 가장 많았고, 다빈도 보완대체요법의 종류는 버섯류가 137명(50.9%)으로 가장 많았고, 녹즙 44명(16.4%)이 다음이었다. 암 종류별 보완대체요법 이용종류는 조사 대상이 된 모든 암 종류에서 버섯류가 가장 많았다.</p> <p>이용 관련 불만사항은 '가격이 비싸다'가 99명(36.8%)로 가장 많았고, '과학적 근거부족'이 62명(23.0%), '효과 미흡'이 48명(17.8%) 순이었다. 주치 의료진과의 관계에서는 의료진과 보완대체요법에 대하여 상의하는 경우가 33.5%였고, 상의하지 않는 이유는 52.5%가 '상의할 필요성을 못느껴서'였다. 연간 보완대체요법 평균 이용일수는 105일이었고, 연 평균 이용비용은 811,000원이었다.</p> <p><b>결론:</b> 향후 보완대체요법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상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환자와 보호자 및 의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환자들이 좀 더 적절한 보완대체요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.</p>					